



만화야 놀자! 어린이, 어른 모두 만화 속에 '풍덩'

지난 11월 3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영상관에서는 제3회 만화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한국만화가협회, 우리만화연대, 한국만화출판협회, 한국만화에니메이션학회, 서울산업진흥재단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서는 소재 제한 없이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을 통해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서 다양한 영역에 걸쳐 영향을 행사하는 만화 활성화를 돕자는 의견들이 모아졌고 무엇보다도 한국만화를 살리자는 목소리가 컸다.

본격적인 만화의 날 행사는 3일부터 9일까지 다채롭게 펼쳐졌다. 3일부터 8일까지 열린 만화 전시회에서는 한국만화가협회 특별 기획전, 우리만화연대 특별 기획전, 한국만화에니메이션학회 초대전, 한국여성만화가협회 초대전 등이 열렸다.

“이라크 파병 문제가 가시화되는 시점에서 어린이들에게 전쟁의 폭력성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왜 평화의 의미가 강조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해준 것 같아 뿌듯하군요.”

특히 테마전시실에 마련된 민족화합과 세계평화를 주제로 한 원화전시, 기획전시실에 마련된 평화와 인권을 주제로 한 작품 전시 및 설치물 전시 등은 아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님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모두들 만화가 가진 시사적 특징을 드러내주면서 교육적 효과를 높였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행사기간 중 관람객들의 인기를 가장 많이 받았던 행사는 페이스페인팅과 캐리커처, 만화 뱃지 만들기, 코스튬플레이 체험 등의 참여 프로그램이었다. 지방에서 올라온 만화 연합 동아리 학생들은 “만화

속 주인공이 된 기분”이라며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의 옷을 입고 특유의 장난을 치며 사진을 찍기도 했다.

8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행사장 입구는 돌리를 비롯해 잘 알려진 만화 캐릭터를 손이나 얼굴에 그려달라며 페이스페인팅 부스 앞에 줄을 선 사람들의 행렬로 북적거렸다.

한국만화의 가능성과 미래를 살피며 만화 독자들과 작가 그리고 작품의 만남을 주선한 올해 만화의 날 행사에서는 국내 우수 만화도서를 할인판매한 수익금으로 낙도 어린이를 돕는 뜻깊은 일도 펼쳐졌다. **한**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